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1년도 제26호

체육시민연대 Cnet포럼 안내

일시: 7월 30일(금) 오후 4시 ~ 5시 30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표준계약서, 무엇이 문제인가?”

도쿄올림픽

올림픽 시작, 시위도 시작... ‘행동하는 선수들’이 온다

최희진 스포츠경향기자

선수들에 “머리 짧으면 다 페미”... ‘숏컷’ 인증으로 맞서다

이슬기 젠더연구소기자

무지갯빛 도쿄올림픽..성소수자 선수 출전 ‘역대 최다’

허세민 한경(스포츠)기자

철인 3종 선수 사망사건 그 후 일년

故 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7년 6개월

안유리 이투데이기자

『국내 스포츠 인권 관련』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 실시
스포츠 분야 양성평등 실현 어떻게?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스포츠는
인권이다

체육시민연대 CNet 포럼

주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지도자)
표준계약서, 무엇이 문제인가?**


- ◇ 사회 : 홍덕기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 발제 : 주재현 | ESPOUSE EARTH 대표(변호사)
- ◇ 토론 : 강경식 | 법무법인 KNO 변호사
정민교 | 닥터런 대표
전선영 |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

○ 일시 : 7/30(금), 오후 4시 ~ 5시 30분

○ 방식 : 실시간 온라인  <https://cau.zoom.us/j/88138377008>
 <https://youtu.be/3qqLtVUt8g0>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 : 02)2279-8999 / sports-cm@hanmail.net



올림픽 시작, 시위도 시작... '행동하는 선수들'이 온다

21일부터 2020 도쿄 올림픽 종목별 예선이 개최되면서 경기장에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선수들의 행렬도 시작됐다. 이번 올림픽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현장 50조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첫 대회인 만큼 50조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과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도쿄 올림픽은 이날 오전 9시 호주와 일본의 소프트볼 개막전을 시작으로 약 3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선수들의 첫 번째 시위는 오후 4시30분 홋카이도 삿포로돔에서 열린 영국과 칠레의 여자축구 개막전에서 나왔다. 양팀 선수들은 경기 개시 전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 세계를 향해 전달했다.

영국 여자축구대표팀은 개막전에서 무릎 꿇기 시위를 벌이겠다고 일찌감치 공언해 왔다. 수비수 데미 스톡스는 “우리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해진 것은 이달 초 IOC가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선전을 금지하는 올림픽 현장 50조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IOC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경기 개시 전 선수 소개 시간, 기자회견 등 특정 상황에서 선수가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메달 수여식 도중 시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그러나 IOC가 경기 단체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게 여지를 둔 것은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가령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육상연맹(WA) 등은 선수들의 정치적 행동에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FIFA는 성명을 통해 “FIFA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믿는다. 이는 FIFA 활동의 범주 내에 있는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직원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베스천 코 WA 회장은 “만약 선수가 메달 시상대에서 무릎을 꿇기로 선택했다면 난 그것을 지지하겠다”고 말해 IOC가 금지한 메달 시상대 위의 시위도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면 세계수영연맹(FINA)은 IOC가 허용한 선수 소개 시간의 시위도 불허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후세인 알 무살람 FINA 회장은 “스타팅 블록은 스포츠의 신성함이 남아있는 곳이고, 개인이 아닌 더 큰 전체를 존중해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일부 종목 선수는 다른 종목 선수들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것에 딱 맞는 해결책은 없다”면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번 올림픽 기간 선수들의 시위 형태와 범위를 두고 IOC와 경기단체 및 선수들 간에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이유다.

AP는 소셜미디어의 등장 이후 선수들의 영향력이 IOC 등 경기단체를 넘어서는 전환기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스포츠인권센터의 데이비드 그레벰버그는 “(선수들이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변화는) IOC뿐만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가 직면한 도전”이라며 “모든 스포츠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선수들에 “머리 짧으면 다 페미”... ‘숏 커트’ 인증으로 맞서다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여성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을 둘러싼 ‘사상 검증’에 여성들이 ‘숏 커트 캠페인’으로 맞서고 있다.

신체심리학자 한지영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여성_숏컷_캠페인’이라는 해시태그를 제안했다. 한씨는 “스포츠 선수에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머리를 자르나요?’, ‘혹시 페미인가요?’ 등의 몰상식한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더 많은 숏컷 여성들이 무대에 서고, 가시화 되어야겠다”고 썼다.

이는 네이버의 올림픽 중계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머리가 짧은 여성 선수들에 대한 ‘페미 낙인’ 발언에서 비롯됐다. 중계 댓글창에는 사격 여자 공기소총 10m에 출전한 박희문 선수를 향해 ‘숏컷(숏 커트)하면 다 페미임’, ‘여자 숏컷은 걸러야됨. 그래도 국대(국가대표)니까 봐줌’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양궁 2관왕에 등극한 안산 선수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도 “왜 머리를 자르나요?”라는 댓글에 안 선수가 “그게 편하니까요”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여성들이 자신의 숏 커트 머리를 인증하며 선수들 응원에 나섰다. ‘긴 머리로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더운 날씨 짧머(짧은 머리) 최고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집에서 셀프로 숏 커트 머리를 자르는 방법을 담은 유튜브 영상 링크가 공유되기도 했다. 해당 해시태그는 트위터 상에서 27일 오전 기준 5800회 가량 인용됐다.

한씨는 2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숏커트 인증 사진을 통해서, 남성들이 여성의 외모와 생각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것에 항의하고, 숏커트인 선수들 포함 한국의 여성들이 혹시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가시화하여 응원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어 “두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필요한 건 ‘페미 아니야?’라는 말이 왜 공격이 되는지,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지향을 왜 숨겨야 하는지에 주목하고, 그럼 당신은 여성인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돌려줘야 할 것 같다”며 “남성들의 저런 반응이 왜 더 많은 페미니즘이 필요한지에 대한 반증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무지개빛 도쿄올림픽... 성소수자 선수 출전 '역대 최다'

23일 개막한 '2020 도쿄올림픽'이 무지개빛으로 물든다.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160여 명의 성소수자 선수들이 출전하면서다. 역대 최다 규모다.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시간) "LGBTQ(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 선수 160명 이상이 도쿄올림픽 2020에 출전할 예정"이라며 "이번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중 가장 포용적"이라고 전했다. 기존 최다 참가 기록은 총 56명의 성소수자가 출전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조직위 회장(위원장)은 "도쿄올림픽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는 데 터닝 포인트를 만든 대회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총회를 열고 도쿄올림픽을 상징하는 구호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에 '다 함께'를 추가하는 안건을 가결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

일본에서는 이번 '다양성 올림픽'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최초 LGBTQ 단체 '프라이드 하우스(Pride House) 설립자 곤 마츠나카는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라면서 "일본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역대 최다 성소수자 선수들이 참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표시도 경기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독일올림픽스포츠연맹은 독일 여자 하키 대표팀 주장 나이키 로렌츠가 LGBTQ 커뮤니티와의 연대감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경기에서 무지개색 완장을 착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로2020'에서도 독일 축구 대표팀 주장인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도 무지개색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간 바 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운동처방사 안주현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그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운동처방사로 일하며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팀 소속 선수들을 때리며 폭언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그는 전지훈련 도중 선수들의 머리, 가슴, 배 등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또 마사지나 근육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9명의 여자 선수들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도 저질렀다.

지난해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 선수와 관계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아무런 조치가 없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안주현과 함께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김규봉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주장 장운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교육부,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전수조사 실시

교육부가 학교 운동부 폭력 사례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가해사실을 확인한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다음달 27일까지 5주 동안 학생선수 6만여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한 첫 조사다. 조사대상에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됐다. 교육부는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 1년 동안 벌어진 피해를 파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인 은폐 또는 축소 의심되는 경우 시도교육청과 함께 특별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실태조사 이후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이나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통해 조치한다.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 따른 경찰수사와 신분상 징계 또는 체육지도자 자격 징계 등이 이뤄진다.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작년 7~8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같은 해 6월 최속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육부는 가해자 519명을 확인해 이 가운데 310명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스포츠 분야 양성평등 실현 어떻게?

스포츠 분야 양성평등 실현 조건은 무엇일까.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양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은 <스포츠 현안과 진단 vol. 35> '스포츠 분야 양성평등,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 스포츠 분야의 성 불평등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2020 체육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녀 선수·지도자의 일반직 비율은 남성 선수(90.4%)가 여성 선수(83.1%)보다 7.3%p, 남성 지도자(69.6%)가 여성 지도자(44.3%)보다 25.3%p 높았다. 여성 선수의 연간 소득은 남성 선수 대비 96.4%, 여성 지도자는 남성 지도자 대비 71.3% 수준이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문화·체육·관광 공공기관·단체의 고용형태별 성비를 조사한 결과, 체육 분야 정규직 여성 비율은 34.2%로 정규직 남성(65.8%)보다 31.6%, 비정규직 여성 비율은 33.3%로 비정규직 남성(66.7%)보다 33.4%p 낮았다. 의사결정권이 있는 직급도 남성 비율이 높았는데, 4급 이상 고위직 비율은 남성 90.1%, 여성 9.9%였으며, 중하위직에서도 남성 62.3%, 여성 37.7%로 나타났다.

'2020 체육인 실태조사'에서 선수·지도자 인권침해 경험 비율은 여성 선수(11.8%)가 남성 선수(9.7%)보다 높았으며, 여성 지도자(11.3%)가 남성 지도자(9.2%)보다 높았다. 인권침해 유형별로 여성 선수의 경우 성희롱이 16.2%로 남성 선수(4.0%)보다 높았으며, 여성 지도자의 경우 성희롱이 18.5%, 성폭행이 1.2%로 남성 지도자(성희롱 0.8%, 성폭행 0.4%)보다 높았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스포츠 분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수준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성평등 현황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성 불평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성평등 영역 연장선상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조사가 선행돼야 영역별 성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고 우선 과제 발굴과 함께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의사결정권도 확대돼야 한다. 양성평등은 여성·남성의 권리가 동등하고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직과 주요 위원회 여성 비율은 낮은 실정. 김 수석연구위원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스포츠 분야 고위직과 위원회, 지도자직 등에서 여성 비율을 확대해 양성평등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표성 비율은 정부의 양성평등 기본계획 목표치 수준으로 설정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방 중심 여성 인권보호 조치도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보호 인식의 내면화가 중요하다. 처벌만으로는 내면화된 성차별적인 편견·고정관념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표면화되지 않은 편견과 고정관념까지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예방 중심의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포츠 분야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가능하다. 성인지 감수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 불평등까지 지각·공감하고 비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교육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대화·토론 등 참여식 방법과 워크숍 형태의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53년전 '검은 주먹', IOC에 "선수들 무릎꿇기 전면 허용하라"

<https://news.joins.com/article/24113301>

[오늘핫키워드] 아베, 개막식 불참... 버림받은 올림픽?

https://www.ytn.co.kr/_ln/0104_202107230632531124

[올림픽] "중립 지키라는 건, 침묵하라는 뜻"...IOC에 공개서한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3034500007?input=1195m>

'성범죄 혐의' 美 펜싱 대표, 올림픽 선수촌에 짐 못풀어

<https://www.chosun.com/sports/tokyo->

[2020/2021/07/23/5IRUAKVBDVHJVJOHU7AK7GEKTE/?utm_source=naver&utm_medium=ref](https://www.chosun.com/sports/tokyo-2020/2021/07/23/5IRUAKVBDVHJVJOHU7AK7GEKTE/?utm_source=naver&utm_medium=ref)

[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sports/tokyo-2020/2021/07/23/5IRUAKVBDVHJVJOHU7AK7GEKTE/?utm_source=naver&utm_medium=ref)

체육인 인권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지역사무소' 경남 유치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69000052?input=1195m>

"광주를 최첨단 스포츠과학 도시로"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1072116153559021>

스포츠로 번진 '미중 갈등'...미 "베이징 동계올림픽 연기하거나 개최지 바꿔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72402109919002001&ref=naver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